

자에서 수술 후 합병증과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1995년 4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 악성종양절제술 후 유리피판을 이용하여 재건하였던 40례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합병증을 피판실패를 포함하여 외과적 합병증(surgical complication)과 내과적 합병증(medical complication)으로 구분하였으며 환자의 연령, 종양의 병기, 술전 방사선치료, 수술 병력, 경부곽청술 유무, 술전 내과적 질환 유무에 따른 합병증과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대상환자 중 60세 미만이 20례, 60세 이상이 20례였으며 70세 이상도 4례가 있었다. 11례는 방사선치료의 병력이 있었으며 10례는 이전 수술 병력이 있었고 23례에서 수술 전 내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수술 후 피판실패를 포함한 외과적 합병증은 23례(52.5%), 내과적 합병증은 8례(20.0%)에서 관찰되었다. 환자의 연령이나 종양의 병기, 수술 병력, 술전 방사선 치료, 경부곽청술 유무 등은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술전 심혈관계질환 유무가 외과적 합병증 발생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32$).

결 론 : 두경부 유리피판재건술에서 술후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전 환자의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13

피부암 절제후 안면재건에 있어 다양한 국소피판술

안기영 · 김태모* · 한동길 · 박대환
대구효성가톨릭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최근 지난날 피부암에 있어 절제후 피부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견해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는 피부이식의 생착을 위한 혈관층을 보존하기 위해 제한적 절제가 피부암의 부적절한 절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피부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범

위한 절제가 요구되며 따라서 절제후 피부이식술보다는 피판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안면재건에 있어 국소피판술은 재건후 피부색 및 질감에 있어 유사하며 그의 피부이식에 비해 내구성이 있고 술후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미용적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본 교실에서는 지난 1990년 3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안면부에 발생한 피부암 환자중 국소피판술을 이용한 43명의 환자들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1) 피부암중 기저세포암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의 편평세포암 8명, 악성흑색종 1명이었다.

2) 호발부위는 상, 하안검을 포함한 안검주변부가 17명, 비부 13명, 협부 5명, 구순부 5명, 기타 3명이었다.

3) 재건방법으로는 extended V-Y advancement flap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적용방법으로는 cheek advancement flap 10명, 정중 전두부 피판 3명, 기타 회전, 전위, Limberg flap이 10명, 구순부 피판 5명, 기타 Abbe, Karapandzic, stepladder 피판이 5명 이었다. 이외에도 조기 술후 합병증 및 재발을 등을 조사하였다.

안면부 결손의 재건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반흔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판의 정확한 작도술 및 많은 경험을 요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소피판술중 적절한 선택과 정확한 작도술만이 보다 나은 기능적, 미용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4

후두암의 레이저 수술

김광현 · 성명훈 · 박민현* · 고태용 · 권택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조기 후두암은 CO₂레이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기 후두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 성적이 매우 양호하기는 하나 환자는 6~7주간 통원을 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이 부담과 불편이 따르고 피부